

— S-1 —

영남대학병원에서 간세포암으로 진단된 1673명의 임상적 고찰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은종렬*, 이현주, 최진수, 권순옥, 최선택, 이상원, 이은주

목적: 간세포암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암종의 하나로 주요사망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병의 임상적 특성상 대부분 조기진단이 되지 않아 근치가 어렵고 예후가 나쁘다. 저자들은 영남대학병원에서 간세포암으로 진단된 환자들의 역학, 임상상 및 경과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간세포암 환자의 효율적 관리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방법: 1983년 3월부터 1999년 6월까지 영남대학병원에서 임상검사, 간조직검사, 컴퓨터단층촬영 및 혈관조영술을 통해 간세포암으로 진단된 167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생존을 비교분석 및 통계처리는 Kaplan-Meier법에 의하여 산출하였다. **결과:** 대상환자 1673명중 남자는 1397명, 여자는 276명으로 남녀비는 5.1:1이었고 평균연령은 54.89 ± 10.77 세였다. 진단계기는 우상복부 동통으로 진단된 경우가 34.5%로 제일 많았으며 복부불쾌감(16.4%), 복수(13.8%)로 내원하여 발견된 경우 순이었고 추적관찰중 발견된 경우가 7.9%였다. 68.4%에서 임상적으로 서명한 간경변이 동반되어 있었고 HBsAg 양성율은 66.7%, anti-HCV 양성율은 6.9%, 양자모두 양성인 경우는 22명(2%)이었다. 44.2%에서 하루 75g, 10년 이상의 음주력이 있었다. 진단당시 Child-Pugh등급은 A,B,C 각각 44.5 : 37.7 : 14.8 %였고 size가 2cm미만인 경우가 7.1%였다. 위치는 우엽이 58.8%로 가장 많았고, 양엽이 28.9%, 좌엽이 12%순이었다. 진단당시 병기는 T3N0(31.7%), T2N0(26.5%), T4N0(26.5%)순이었고 T1N0는 4.9%였다. 진단시점과 전관찰기간중 전이는 16.2%에서 있었고 그중 폐전이 9.1%로 가장 많았고, 골전이가 1.8%, 그외 부신, 신, 복강종이 있었다. 평균 생존기간은 8.42 ± 13.08 개월이었으며 생존률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중 2cm미만인 경우, Child 등급이 A인 경우, 정맥류 및 복수, 문맥혈전이 없는 경우, 진단당시 암 병기가 낮은 경우가 예후가 좋았으며 간경변 및 알콜의 병력은 예후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내에서 사망한 403명의 사망원인으로 간성흔수 및 간부전이 31.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암사망(34.7%), 출혈(10.4%), 간암파열(8.2%)순이었다.

결론: 간세포암의 역학, 임상적 특징 및 위험인자에 대해 15년간의 관찰을 통해 볼 때 아직 간세포암의 조기진단은 낮은 것으로 치료효과와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조기진단을 위한 체계적 지침설정이 필요하다.

— S-2 —

간경화 환자에서 입원전후의 child classification의 변화

한양대학병원 내과학교실 소화기병연구소 고려대학교 통계학교실¹⁾

전대원*, 이민호, 최호순, 윤병철, 함준수, 이동후, 기춘석, 박경남, 이재원¹⁾, 김대윤¹⁾

목적: 현재까지 간경화환자의 간기능의 평가와 예후를 평가하는데 있어 child classification이 널리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child classification에 의한 scoring system은 주관적인 요소가 있어 측정하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복수 조절이나 간성흔수로 입원환자에서 입원 전후의 child 점수는 크게 호전되나 실제로 간기능을 나타내는 여러 지표들의 수치는 큰 차이가 없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간경화 환자에서 입원전후의 child score의 변화와 다른 간기능을 나타내는 지표들을 통하여 입퇴원 전후의 child score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법:** 1997년 3월부터 1999년 7월까지 한양대학병원에 입원한 간경화 환자 11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중 입원시 child B(23명), child C(28명)로 입원한 사람은 51명 이었으며 남자가 33명(64.7%) 여자가 18명(35.3%) 이었다. 퇴원시 child classification이 입원시 보다 악화된 사람은 1명(사망)에 불과 하였으며 나머지 50명의 환자들은 child score가 낮아져, 퇴원시 child A로 퇴원한 사람은 9명(17.6%), child B는 29명(56.9%), child C는 13명(25.5%)로 퇴원하였다. child score역시 입원시 9.45점에 비하여 퇴원시 8.04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됨을 볼 수 있었다.($P=0.0001$) 그러나 간기능을 간접적으로 나타내주는 지표인 PT는(49.5% vs 46.54%)입퇴원 전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P=0.184$), ALT/AST ratio의 경우 (0.55 vs 0.54)역시 전후의 차이가 없었다.($P=0.8911$) 그러나 albumin의 경우는(2.71mg/dl vs 3.08mg/dl) 입퇴원 전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이는 albumin의 반감기를 고려해 보았을 때 입원기간동안 albumin투여에 의한 것이라 생각이 된다. 다만 bilirubin만은 입원전 3.58mg/dl에서 퇴원시 2.68mg/dl로 유의하게 감소 되었다.($P=0.0239$) **결론:** child classification은 간기능과 환자의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나 측정하는 이마다 주관적인 요인이 많으며 입원 전후의 child 점수의 호전은 실제 간기능의 호전의 정도 보다는 복수, 간성흔수의 일시적 호전에 의한 일과적인 요소가 많다. 위에서 보듯이 child score의 개선이 실제로 그만큼의 간기능의 호전과 예후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child classification중 가역적인 변수(treatable variable)에 기인한다고 생각이 되며 앞으로 간기능과 예후를 지속적이며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다고 하겠다.